

저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담배 피우시는 모습만큼은 정말 밉고 싫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담배를 피우실 때마다,
“아빠,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왜 피우세요?”
라고 여쭙보면 아빠는 멋쩍게 웃기만 하
십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시니까 기침도 많
이 하시고, 이도 노래지셨습니다.

우리도 담배연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눈이 맵
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지난해 마지막 날에 거실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아빠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시니까 엄마가 가족 회의를 연 것입니다.

한 해동안 잘못된 점도 반성하고, 새해 희망도 말하였습니다. 저는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아빠께 새해부터는 담배를 꼭 끊으시라고
하고, 옆에서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모두 아빠가 담배를 끊으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담배 생각이 안 나시도록 동생과 저는 아빠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재롱
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입이 심심하지 않게 맛있는 과자와 사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친 후, 아빠가 피우시는 담배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옛날
에는 하루에 15개정도 피우셨는데, 2개로 줄었다가 1개 반, 1개 이렇게 차츰 차츰 줄어들었습
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담배끊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랑 새해에 한 약
속이기 때문에 지키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우리들은 담배끊기가 얼마나 힘든 일
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해 내신 아빠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아빠가 담배를 끊으신 걸 보고 저도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담배를 꼭 끊으시라고 말입니다. 가족들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
지 마시고 옆에서 도와드리면 우리 아버지처럼 담배를 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부터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월드컵에서도 16강에 들고, 금연에도 성공하여 우리나
라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72**



새해의 약속

심지은

광주 문산초등학교 2-7

우연클짖기 금상 수상작품

우리 집은 여의도 광장아파트이다. 그래서 여의도 공원이 무척 가깝다.
 난 여원이 언니랑 여의도 공원에 자전거를 타러 자주 간다.
 갈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있어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언니랑 같이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면 저 멀리 앞에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언니, 오빠들이 대여섯 명 정도 걸어온다.
 산책로가 아닌 자전거 길을 걸어오는 것을 보면 자전거 타는데 신경이 쓰이지만, 더 나쁜 것은 손에 꼭 담배가 들려있다는 것이다.
 시원한 바람을 마시며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굴리다가 그 언니, 오빠들 옆을 지나 치면 담배 냄새가 내 콧속으로 마구 마구 들어온다.
 시원한 공기 속에 섞여있는 담배 냄새는 정말 지독하다.
 난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어 그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숨을 쉬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한참가면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 언니, 오빠들은 학생일까, 불량 청소년들일까? 왜 어른도 아닌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일까?
 담배는 건강에 아주 나쁘다고 TV뉴스 시간에 들었다.
 어렸을 때 담배를 피우면 머리가 나빠져서 공부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언니, 오빠들이 걱정이 된다.
 그 언니, 오빠들 집에 계신 부모님도 다 담배를 피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언니, 오빠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모를 수밖에..
 담배를 피우면 옷이나 입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부모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그 자식들이 담배를 피워도 냄새를 못 맡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혼나고 야단을 맞고 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텐데..
 우리 엄마는 한번 화나면 무척 무섭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안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라도 담배를 끊을 것이다.
 그 언니, 오빠들이 담배를 끊어서 여의도 공원에서 자전거를 탈 때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지독한 담배 냄새는 저 멀리 멀리 날아가서 황사를 일으키는 중국까지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㉞



임지원
 서울 윤중초등학교 3-3

